

통일 고문 오찬 간담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의 면면들이 우리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항상 고심하고 모색 해 오신 분들 같습니다. 각계에서 신망 있고 존경받는 분들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움직이는 중요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일이 찾아뵈어야 되는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셔서 애기하게 돼 기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십시오. 주로 걱정해주시고 때론 비판과 꾸지람도 있겠지만 가끔 칭찬도 해주십시오.

말씀 잘 들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통일이라는 말을 즐겨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통일이냐에 대해 확고한 방향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평화를 깰 수도 있고 국민의 안정된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생각하고 평화를 우선해오고 통일은 멀리 두고 정치를 해왔는데 대통령 돼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건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멋지게 이끌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사회를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나라를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하시면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